

# ‘신들에 대하여(peri theōn)’를 통한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 연구

이 윤 철

(서울대학교 철학과 대학원)

인식(epistēmē)의 문제를 다루는 대화편인 『테아이테토스』편에서, 소크라테스의 대화 상대자인 테아이테토스는 ‘인식은 지각(aisthēsis)’라는 정의를 제시한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테아이테토스의 이와 같은 정의를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의 입장이라고 규정한다. 이와 같은 규정 이후, 플라톤은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을 해석한 뒤, 비판적으로 해체하는 작업을 이룬다. 그의 해석 작업은 프로타고라스의 인간 척도설(homo mensura these), 즉 ‘인간은 모든 것의 척도(metron)인데, 있는(-인) 것들에 대해선 있다(-이다)고, 그리고 있지(-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선 있지(-이지) 않다고 하는 바의 척도이다(152a)’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결과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은 사적 인식론의 입장에서 대상의 존재성(tou ontou: of being)과 무오류성(apseudes: non-fallacy)을 확보하며, 지각(perception)에 입각한 상대주의 인식론으로 귀결된다. 그런데 어떠한 인식론이 이와 같은 입장을 가진다는 것은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우선 첫째로 문제가 되는 점은 동일한 인식 주체가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상반되는 혹은 각기 다른 지각 내용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과, 둘째로 제시되는 문제는 지각이 그 대상으로 가지는 것은 외부 대상으로부터 유출되는 지각 내용이지, 그 외부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처럼 제시되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플라톤은 헤라클레이토스의 만물유전설(flux theory), 즉 ‘어떠한 것도 결코 있는(-인) 것이 아니고, 언제나 생성되고 있다(152d)’를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에 대한 존재론적 기반으로 도입하

는데, 그 결과 아이러니하게도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은 다시 세 가지의 문제점을 통해 감각(sensation)에 입각한 극단적 상대주의로 전락하게 되며, 마침내 처음 충족되었다고 여겨졌던 대상의 존재성 및 무오류성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채 완전히 해체되고 만다.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이 가지게 되는 세 가지의 문제점은 각각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은 판단이 불가능하다. 지각 내용에 대한 인식 주체의 접수는 이를 토대로 한 어떠한 판단 즉 로고스를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인식 주체는 자신의 자기동일성을 확보할 수 없다. 헤라클레이토스의 만물유전설이 제시하는 바에 따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하는 것에 주어진 시간은 끊임없이 단절된 순간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인간이 자신의 자기동일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성적 판단은 차치하더라도, 자신의 감각적 경험조차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인식을 연속적인 선상에 놓을 수 없다는 데로 이어지게 된다. 셋째 각각의 인식 주체들이 서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이나 의미를 사전에 (혹은 순간이라도) 공유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각각의 인식 주체들은 서로 상호간에 어떠한 의사소통(dialegethai)도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인식 주체들은 자신에게만 고유하고 사적인, 게다가 지속적이지 못한 일회적인 감각정보만을 가지게 되므로, 자신 스스로조차 시간  $t_1$ 과 다른 시간  $t_2$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으며, 더 나아가 타인과의 의사소통은 처음부터 차단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은 결국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동시에 인식으로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 된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플라톤이 해석하여 해체되고 마는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만을 아무런 비판과정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테아이테토스』편에서, 소크라테스는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을 따를 경우, 프로타고라스 자신은 누구보다도 더 참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신(神)들조차도 테아이테토스보다도<sup>1)</sup> 더 참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프로타고라스의 이와 같은 말로 인하여 그 자신의 인식론

이 비판을 받게 되자, 플라톤은 프로타고라스가 신에 대해 알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신과 관련하여 자신을 비판하는 것은 아마도 옳지 않을 것이라는 그의 입장을 대변한다. 프로타고라스가 시에 대하여 알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은 대화편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theous te eis to meson agontes, hous egō ek te tou legein kai tou graphein peri autōn hōs eisin ē hōs ouk eisin...(162d)

... 신들에 대해서는 그 신들이 있다(-이다)고 해야 할 지 있지 (-이지) 않다고 해야 할지 말하는 바나 저술하는 바에 있어서 논의로 한다. ...

도대체 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어 프로타고라스가 신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한다고 하는가? 그리고 과연 프로타고라스는 신들에 대해 단지 이처럼 말했던 것인가?

프로타고라스는 섹스투스 엠피리쿠스와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우스 등을 통해서 신들에 대한 언급을 직접 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더군다나 디오게네스는 프로타고라스가 대중 앞에 나서서 행했던 연설 중에 가장 처음의 것이 다름 아닌 신들에 대한 프로타고라스 자신의 판단이라고 전하고 있다.<sup>2)</sup> 만약 디오게네스의 전승이 사실이라면, 플라톤은 프로타고라스의 신들에 대한 언급을 『테아이테토스』편을 저술하기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던 그 내용을 162d에서와 같이 우회적으로 표현하면서 밝히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테아이테토스』편이 인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탐구하는 대화편이며, 대화편 통틀어 가장 많은 부분을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을 해석하고 해체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플라톤이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인식 판단인 신들에 대한 언급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 즉 필자가 궁극적으

1) 즉, 자신에게 고유한 지각 내용을 가지는 인식 주체를 의미한다.

2)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우스, 『저명한 철학자들의 삶』, 9.54.

로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플라톤이 『테아이테토스』편을 통해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왜 프로타고라스가 인식과 관련하여 직접 언명을 했다고 전해지는 말을 다루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이와 같은 문제 제기는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프로타고라스의 신들에 대한 판단은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한 인식의 결과로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신들에 대해 인간이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를 직관을 통해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인식의 대상으로 신들을 놓고 그 대상을 고찰해 본 결과로서 인식 주체 즉 프로타고라스 자신에게 주어진 판단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인식의 한 사례인 신들에 대한 판단을 플라톤이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이다.

이후에 제시될, 섹스투스과 디오게네스에 의해 전승된 프로타고라스의 신들에 대한 언급인 ‘신들에 대하여(peri theōn)’를 살펴보면, 플라톤이 이 단편과 관련하여 『테아이테토스』편에서 언급한 것이 일견 올바르다고 볼 여지는 있다. 왜냐하면 “프로타고라스는 신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한 것을,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프로타고라스는 신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데 논외로 하고자 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리스어 legō와 graphō는 일차적으로 ‘말하다’와 ‘쓰다’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단순히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나 쓰는 것이 아니라, 글의 내용이나 흐름에 따라서 oida(eidenai) 즉 ‘안다’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기 때문이다.<sup>3)</sup> 그러므로 플라톤은 비록 oida(eidenai)라는 인식 주관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동사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대신에 legō와 graphō라는 표현을 통하여 프로타고라스의 신에 대한 언급을 나름대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다.

3) 이와 같은 이해의 도움을 위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저술들에서 legō de라는 말을 매우 빈번히 사용한다. 이는 단순히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라, 보다 한정적으로 ‘내가 이해하고 아는 바에 따라서 의미하는바’라고 해석이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legō는 ‘안다’는 의미의 동사인 oida(eidenai)와는 별반 차이가 없다. 또한 곧이어 인용될 섹스투스의 표현을 통해서도 legō와 oida(eidenai)는 동의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플라톤이 직접적으로 프로타고라스의 ‘신들에 대하여’를 제시하여 대화편 상에서 드러내고는 있다고 이해하기는 어렵다. 대화편에서 플라톤이 의미하는 바는, 프로타고라스는 신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들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더 이상 논의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말하다’와 ‘쓰다’를 ‘안다’와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한다’를 대화편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논외로 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플라톤은 프로타고라스의 직접 언명을 제쳐두고서 우회적인 표현들을 사용하여 ‘신들에 대하여’를 대화편 상의 논의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인가?<sup>4)</sup> 프로타고라스의 ‘신들에 대하여’는 단순히 신들에 대해 프로타고라스는 알 수 없다는 것만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 단편은 또한 프로타고라스가 왜 신들에 대해 알 수 없다고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이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가? 우선 섉스투스<sup>5)</sup>와 디오게네스를 통해 전승되는 단편을 살펴보자.<sup>5)</sup>

---

4) 놀랍게도 이 점에 대해서 주목하는 학자는 찾아볼 수 없으며, 『테아이테토스』의 대표적인 해석가인 콘포드(cornford)나 버니엣(burnyeat), 그리고 맥도웰(McDowell)과 보스톡(Bostock)조차도 본 대화편과 프로타고라스의 신에 대한 언급 사이의 상관성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버니엣(1990)은 p.286에서 단지 이에 대해 레벳(Levette)의 번역에 각주로서, ‘프로타고라스에 의한 유명한 선언에 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신들에 대하여 나는 그들이 있는지 혹은 있지 않은지, 또는 형태가 어떠한지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을] 아는 데에는 많은 방해물들이 있기 때문인데, [그 방해물들은] 대상의 모호함과 인간 삶의 짧음 [등] 이다.’라고만 처리하고 있으며, 거트리(Guthrie, 1978) 역시 p.234에서 프로타고라스의 ‘신들에 대하여’에 관해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말이 가지는 함의나 인간척도설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프로타고라스의 ‘신들에 대하여’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일까? 아마도 이는 프로타고라스의 ‘신들에 대하여’와 인간척도설 사이의 무관성을 암묵적으로 표현하고 있거나 혹은 오로지 『테아이테토스』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 ‘신들에 대하여’는 텍스트 상에서 거의 무의미하게 간략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논외로 빼버렸을 것으로 사료된다.

5) 이하 제시된 프로타고라스의 신에 대한 두 언급을 두루 통괄하여 다룰 테지만, 가급적 보다 표현이 명확하고 이유까지 제시하고 있는 디오게네스의 전승

peri de theōn oute ei eisin out' hōpoiōi tines eisi dynamai legein: polla gar esti ta kōlyonta me.(섹스투스 엠피리쿠스, 『자연철학자들에 반대하여』 1. 56, DK A12)

그런데 신들에 대하여 [신들이] 있는(-인)지 혹은 어떠한 모습인지 [나로서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신들에 대해 말하는 데] 나를 [막는] 방해물들이 많기 때문이다.

peri men theōn ouk exō eidenai out' hōs eisin, out' hōs ouk eisin: polla gar ta kōlyonta eidenai, hē t' adelotēs kai braxys ōn ho bios tou anthrōpou.(디오게네스 라에르티우스, 『저명한 철학자들의 삶』 9.51, DK B4)

신들에 대하여 [신들이] 있는(-인)지 혹은 있(-이)지 않은지 나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신들을] 아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방해물들은] [신들의] 불분명함과 [신들을 알기에는] 인간의 삶이 짧다는 것이다.

‘신들에 대하여’는 hōs eisin, hōs ouk eisin 구문을 이용하여 인식 대상의 상태(status)를 제시하고 있다. 즉 신이 있는(-인)지 혹은 있(-이)지 않은지 라는 상태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어에서 사용되는 einai(be)동사는 크게 세 가지 용법으로 이해되는데, 각각 계사적 용법(copula)과 진리확정사적 용법(veridical), 그리고 존재사적 용법(existential)으로 사용된다. 그렇다면 ‘신들에 대하여’에서 사용되는 동사는 어떠한 용법으로 이해되어야 하는가? 플라톤은 프로타고라스의 인간척도설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인간척도설에 사용되는 einai동사를 진리확정사로 해석하였다.<sup>6)</sup> 그런데 인식 대상으로서의 신들에 대한 인식 주체의 판단상태를 밝히고 있는 이 단편에서는 eisin(einai)을 진리확정사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진리확정사로 본다는 것은 어느 특정한 상태가 바로 그와 같이 그 대상을 인식하는 주체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럴 경우 인식 주체가 인식의 그 대상을 알지 못한다고 말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

을 주로 하여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6) 『테아이테토스』 152a-c.

해서 만약 대상이 특정 상태로 나타나는 경우엔, 인식 주체가 대상을 그러하다고 여겨지는 만큼 그에게 그러하게 나타난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고, 이와 달리 다르게 나타난다면 역시 그 경우 인식 주체에게 대상이 달리 여겨지는 만큼 이전과는 다르게 나타난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며, 그 결과 인식 주체는 각각의 경우 다르게 인식 혹은 지각한다고 하면 될 것이지 굳이 그 대상을 모른다고 말 할 이유를 가지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부분의 동사를 계사로서 보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프로타고라스는 hōs eisin, hōs ouk eisin 외에, hōpoiōi tines, 즉 신이 어떠한 모습 인지를 묻고 있기도 하는데, 만약 einai가 계사로서만 역할을 한다면 hōpoiōi tines를 묻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신들에 대하여’에서 등장하는 einai동사는 존재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석한다.<sup>7)</sup> 게다가 그리스어 einai동사에 대한 연구자인 칸(Kahn)은, 파르메니데스의 단편을 위시하여, 기원전 4세기 이전의 글에서 보여지는 einai동사는 주로 진리확정사로서의 역할을 가지지만, 종종 존재사로서의 역할도 가지는데 그 기능을 하는 경우의 대표적인 예로 프로타고라스의 ‘신들에 대하여’를 들고 있어서 필자의 해석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sup>8)</sup> 따라서 우리는 이제 ‘신들에 대하여’에 대하여 프로타고라스가 의도하고 있는 바를 유추하여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이 종합하여 표현될 수 있다.

7) 프로타고라스의 단편에서 einai가 존재사로서의 역할을 가진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플라톤은 『테아이테토스』 185c-d에서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은 여러 감각에 동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들(ta koina)을 인식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비판하고 있다. 이때 공통적인 것들의 예로 제시되는 것은 ‘존재(ousia)/비존재(to mē einai), 유사성/비유사성, 동일성/타자성, 하나(hen) … 등’인데, ‘신에 대하여’에서 사용되는 einai동사를 존재사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프로타고라스가 존재와 비존재, 즉 ‘있음과 없음’을 인식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확보할 수 있으며, 따라서 플라톤이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에서 지각을 단순히 감각으로 치환하여 이루는 비판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8) Kahn(1973), p.302. 또한 커퍼드(Kerferd, 1981) 역시 p.167에서 칸의 해석에 동의하고 있음을 밝힌다.

신들에 대하여 [신들이] 있는지 있지 않은지 혹은 어떤 모습인지 나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신들을] 아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많은데, [신들의] 불분명함과 인간의 삶이 짧다는 것이다.

이제 신에 대한 인식을 방해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자. 프로타고라스가 신에 대하여 알 수 없다고 하는 이유로 제기된 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즉 신의 불분명성과 인간의 삶의 짧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선 '신의 불분명성'에 대하여 살펴보자. 신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그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신이 인식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하는 경우와, 둘째 신이 어느 순간에는 있게 나타나고 다른 순간에는 있지 않게 나타나며 또한 어느 순간에는 특정한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다른 순간에는 앞서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나의 상태로 알 수 없다고 하는 경우이다. 다시 말해서, 외양 양태적 불분명성 뿐만이 아니라 존재론적 불분명성, 즉 시간  $t_1$ 에선 있다가(A) 다른 시간  $t_2$ 에선 있지 않은(B) 경우를 포함하여, 서로 다른 시간  $t_1$ 에선 이랬다가(A'),  $t_2$ 에선 저랬다가(B') 하므로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경우는 운터슈타이너(Untersteiner)에 의해 제기된다. 그는 신은 인간 인식의 대상 즉 감각 경험(sense experience)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프로타고라스는 신에 대해 있거나 있지 않거나 혹은 어떠한 모양인지 알 수 없다고 해석한다. 다시 말해서 '신'은 인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무언가가 인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단순히 그 대상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해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언급하거나 또는 어떠한다고 할 수조차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프로타고라스에게 있어서 생각은 지각과 판단을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들에 대하여'에서 프로타고라스는 분명히, 비록 그 내용이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신들의 있음과 있지 않음 그리고 신들의 어떠한'에 대해 말을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우리는 프로타고라스가 '신에 대해 알 수 없다'고 한 것은, 인식의 대상으로 놓인 어떤 것에 대한 판

단을 내린 것이며, 이와 같은 판단이 성립하기 위해서라도 신은 논리적으로 판단에 앞서 존재(pre-exist)해야 하고, 동시에 신에 대한 판단이 성립하기 위해서, 그 판단의 내용이 어떠하든, 반드시 신이 판단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통적으로 인식 대상이 인식에 앞서 있어야 하며, 그 결과 인식은 언제나 존재하는 인식 대상에만 가능하다는 입장은 엘레아 철학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해되어 온 바다. 다시 말해서 판단이나 언급의 대상이 반드시 그 판단이나 언급에 앞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철학사에서 명확히 주지되다시피, 파르메니데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바이다. 따라서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에서도 인식이 있는 대상에 대해서라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파르메니데스를 위시한 엘레아학파의 사고 구조를 프로타고라스가 받아들이고 있는 지에 대해 확인 할 것을 우선적으로 요구받는다. 그렇다면 프로타고라스가 이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그런데 『테아이테토스』편과 『에우티데모스』편에서 프로타고라스가 그 자신의 모순 불가능성(ouk estin antilegein)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위와 같은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프로타고라스는 『테아이테토스』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epei ou ti pseudē doxazonta tis tina hysteron alēthē epoiēse doxazein: oute gar ta mē onta dynaton doxasai, oute alla par' ha an pasxē, tauta de aei alēthē.(167a)

... 적어도 거짓된 판단을 한 어떤 사람을 나중에 참된 판단을 하게끔 만든 자가 있었던 적은 전혀 없다네. 왜냐하면 있지(이지) 않은 것들을 판단할 수도, 겪는 것들 이외의 다른 것들을 판단할 수도 없는 일이고, 자기가 겪게 되는 것 이것들이 언제나 진리(참)이기 때문에 말일세.

이 부분에서 우리는 프로타고라스가 있지 않은 것은 애초에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어떠한 언급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봉쇄되어있다는 것을 프로타고라스는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의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프로타고라스의 ‘신들에 대하여’는 이미 하나의 어떠한 특정 판단의 결과로서 제시된 것이고 따라서 프로타고라스는 신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프로타고라스가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고 생각할 이유를 가지지 않게 된다. 또한 이와 더불어 『에우티데모스』편에서 프로타고라스는 있지(-이지) 않은 것은 말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데, 이 언급 역시 위에서 이루고 있는 해석에 큰 지지가 된다. 이에 대한 프로타고라스의 말은 다음과 같다.<sup>9)</sup>

ti oun; ē d' hos: eisin hekastō tōn ontōn logoi; pany ge. oukoun hōs estin hēkaston ē hōs estin; hōs estin. eī gar memnēsai, ephē, ō Ktēsippe, kai arti epedeixamen mēdena legonta hōs ouk esti: to gar mē on oudeis ephanē legōn.(285e9-286a3)

“그러면 어떤가?” 그가 말했네. “존재하는 것들 각각에는 논거(규정)들이 있는가?” “물론입니다.” “그러면 각각이 존재하는 한에서인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한에서인가?” “존재하는 한에서죠.” “크테시포스, 자네가 기억한다면 좀 전에 우리는 아무도 그것이 있지 않는 한 말하지 않는다는 점을 내 보였네.” 그가 말했네. “왜냐하면 누구도 있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일세.”

이를 통해 우리는 프로타고라스가 모순 불가능성<sup>10)</sup>에 대한 논의를

9) 엄밀히 이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말은 프로타고라스 자신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디오니소도로스의 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플라톤은 디오니소도로스의 논의가 프로타고라스의 추종자들에 의해 주장된다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디오니소도로스의 말을 곧 프로타고라스의 말로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10) 프로타고라스의 ‘모순 불가능성(ouk estin antilegein)’은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참된 판단과 거짓 판단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를 모순(antilegein)으로 상정한 뒤, 거짓 판단의 발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따라서 모순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거짓 판단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프로타고

하기 위해 이에 대한 준비로서 동의되는 것은, 반드시 무엇인가 판단을 하거나 언급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판단이나 언급에 앞서 어떤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신들에 대해서 신들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없다(말할 수 없다)고 말한 이유, 즉 신들의 불분명성이 단순히 인식 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란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들을 종합하여, 인식 주체가 무엇인가 말한다는 것은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며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고, 따라서 프로타고라스는 신에 대한 판단을 성립하기 전에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해석의 노선을 토대로, 운터쉬타이너가 취하고 있는 입장에 따라 프로타고라스가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그 대상을 알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모순적인 해석인 동시에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석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제 신이 불분명한 것은 위에서 제기된 두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를 따라 신들이 각 순간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프로타고라스는 신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없다고 언명하고 있는 것이라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면 각 순간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 그

---

라스는 기본적으로 인식 주체가 주어진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을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는 판단을 성립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본적인 기조로 하고 있다. 즉 주어진 대상에 대해서는 더 좋게 판단하거나 더 나쁘게 판단하지, 그것 자체를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프로타고라스의 이러한 말들로부터, 우리는 프로타고라스가 제기하는 모순 불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프로타고라스는 말(로고스) 즉 판단은 ‘-인’ 것들 각각을 ‘-으로’ 기술하며, 어떤 것을 ‘-이지’ 않은 것으로 기술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지’ 않은 것을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누구도 어떤 것을 ‘-이지’ 않은 것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것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것에 대해 기술하는 사람은 모순될 수 없다. 또한 두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둘은 서로 모순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둘은 아무런 문제도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것을 말한다는 것은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은 어떤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은 말을 하지 않는 경우이며, 이 경우 역시 그 둘은 서로 모순될 수 없다.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과 말하지 않는 사람이 서로 모순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상에 대해 알 수 없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필자는 그 의미가 '인생의 짧음'과 연장선 위에서 상호적으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 의미를 살펴보기에 앞서, 신에 대해 알 수 없다는 두 번째 이유인 '인간의 삶이 짧다'는 것의 의미를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인간의 삶이 짧다(braxys)'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무엇(의 삶)보다 짧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간의 삶이 그 자체로 짧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의 삶)과 비교한 결과 그것보다 짧(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경우 다른 무엇(의 삶)은 아마도 신(의 삶)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두 대상을 비교할 때 제시되는 상대항 혹은 관계 개념은 동일한 기반 조건 위에서 이루어진다. 즉 비교하는 것과 비교되는 것은 어떤 특정하고 둘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건 위에서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짧음'의 경우 그 상대항은 '김'이 될 것이고, 짧음과 김이라는 두 관계 개념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건은 '길이'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길이'면에서 어떤 것은 짧고 어떤 것은 길다고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프로타고라스가 '짧다'라는 관계 개념을 사용하여 인간의 삶에 대해 판단을 내린 것은, 결국 인간의 삶이 시간적인 연속성과 지속성 상에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이처럼 프로타고라스가 자신의 판단의 결과로서 관계 개념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einai동사가 존재사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과 함께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요인이다. 앞서 플라톤은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이 동일한 대상에 대해 상반된 판단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문제를 헤라클레이토스의 만물유전설을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의 존재론적 기반으로 높음으로서 해소할 수 있다고 하였기에, 기본적으로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을 따를 경우 관계 개념을 요구하는 판단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즉 상대항으로 주어지는 개념들을 상대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일정하고 특정한 성질로서 인식의 대상에 주어져 있는 것으로 프로타고라스는 판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신의 삶의 길이보다 인간의 삶이 길이가

짧다는 인식의 결과를 통하여, 프로타고라스가 관계 개념에 대한 판단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은 헤라클레이토스의 만물유전설을 필연적인 기반으로 요구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다시 말해 주체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교되는 관계 개념을 통해 모순되는 판단의 결과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즉 관계 개념을 포괄하는 다항술어에 대한 판단을 확보하기 위해 헤라클레이토스의 만물유전설을 프로타고라스 인식론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게 되는 것이다.<sup>11)</sup> 이와 더불어 헤라클레이토스의 만물유전설을 요구하지 않는 한,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에서 인식 주체는 자신의 자기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상정될 수 있다. 또한 인간의 삶이 시간적인 연속성 상에 있다는 것은, 만물유전설이 함의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지금 이 순간’으로서의 단절된 현재만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전의 시간 즉 과거가 그 주체에게 보존이 되고 동시에 앞으로 다가올 시간 즉 미래가 역시 동일한 주체에게 예기된다는 것이 확보되는 경우를 의미한다.<sup>12)</sup> 따라서 시간적인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프로타고라스의 인식 주체가 매 순간 단절되어있는 자신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짧은 인간의 삶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유지되는 한에서는 인식 주체의 자기 동일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 동일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경우, 감각 기관은 ‘자기’의 주체가 되기엔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프로타고라스에게 있어서 ‘자기’의 주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서 제시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프로타고라스가

11) 관계 개념과 헤라클레이토스의 만물유전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태수(1995)의 글, pp.94-95 참조.

12) 기종석 역시 ‘신들에 대하여(peri theōn)’로부터 이와 같은 해석을 유도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인간의 삶이 짧다거나 길다거나 하는 것은 일정한 길이를 말하는 것이요, 그 길이는 한 인간에게 있어 과거가 보존되고 미래가 전망되지 않는다면 확보될 수 없을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프로타고라스의 인간이 시간적 연속성 상에서 동일성을 확보하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명확히 한다(기종석(1988), p.96).

영혼(psychē)에 대한 존재를 적극적으로 부정한 적이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디오게네스의 전승에 따르면 프로타고라스는 ‘영혼은 지각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mēden einai psychēn para tas aisthēseis)’<sup>13)</sup>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프로타고라스의 말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바는, 첫째로 프로타고라스가 영혼에 대하여 무엇인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 영혼과 지각을 완전하게 등치로 놓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신들에 대하여’에서 인식을 방해하는 요소 중 대상의 불명료함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일단 어떤 대상에 대한 판단이나 믿음은 있는 대상에 대한 판단과 믿음이라는 것을 앞서 확인한 바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프로타고라스는 영혼에 대한 판단 또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이 존재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영혼은 지각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통해, 비록 영혼이 지각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으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각과는 구분되는 어떠한 것으로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프로타고라스가 사용하는 지각이 플라톤이 한정하는 바와 같이 감각의 범위로만 제한될 필요가 없다는 점도 보았기 때문에,<sup>14)</sup> 보다 광의의 의미에서 영혼을 고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지각과는 구분되는 영혼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프로타고라스의 인식 주체의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해석의 여지를 열어놓고자 한다.

‘불분명성’과 ‘인간의 삶이 짧다’는 것으로부터 종합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바는, 인식의 주체가 시간적인 지속성 상에서 자기 동일성을 유지한 채 시간에 따라 자기 다른 판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을 이처럼 이해한다고 해서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비판을 통해 제기된 모든 문제점들이 일거에 해소된다고

13)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우스, 『저명한 철학자들의 삶』, 8.51. 프로타고라스가 이와 같이 영혼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은 『테아이테토스』편 152a에서도 나타난다.

14) 앞서 보았듯이, 이는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에서 인식 주체가 ‘있음’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플라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 문제는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되며, 그 문제에 따라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은 아직 까지 인식으로서의 가치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그 문제는 다음과 같다. 비록 인식 주체의 시간적 연속성 즉 자기 동일성이 확보가 되고 동시에 그 시간적 연속성 상에서 여러 판단을 하여 종합적으로 어떤 특정 판단을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sup>15)</sup> 인식 주체의 부가적 혹은 주변적인 조건에 따라 서로 양립 불가능한(상반되는) 판단을 하였을 경우, 그리고 그 각각의 판단이 거짓되지 않아야 한다(apseudes)고 할 경우, 여전히 두 양립 불가능한(상반되는) 판단을 한 각각의 경우에서 인식 주체가 여전히 동일한 인식 주체인가라고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플라톤의 입장에서 엄밀히 말한다면, 이와 같은 경우 여전히 그 인식 주체를 동일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다. 하지만 위의 조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동일한 인식 주체가 서로 양립 불가능한 판단들을 각각 다른 시간과 조건 하에서 이루게 될 경우, 그 인식 주체가 동일할 수 없다고 하는 가장 주된 근거는 바로 있는 대상에 대해서야하고 무오류적이어야 한다는 플라톤의 인식(epistēmē)의 조건에 기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어느 경우에서든지간에 판단은 인식 주체에게 거짓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으로부터 인식 주체의 동일성을 박탈하는 것이다. 물론 『테아이테토스』편은 인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플라톤의 대화편이고, 인식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인 ‘대상의 존재성과 무오류성의 확보’는 테아이테토스를 통해서도 동의가 된 점이다. 그러나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이 바로 플라톤의 모든 비판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서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이 플라톤이 의도하는 바의 인식으로 성립되지는 못할지언정, 그렇다고 해서 플라톤이 의도하는 식으로 해석되고 또한 그로 인하여 해체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군다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영혼’에 대한 프로

15) 여러 판단을 종합하여 어떤 특정한 판단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신들에 대해 있는지 있지 않은지 혹은 어떠한 모습인지 알 수 없다’고 말하는 바로 그 판단을 가리킨다.

타고라스의 입장이 인식 주체의 동일성을 유지해주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해석될 여지로 열려있다는 것을 고찰하였기에, 플라톤의 의도로부터 피할 길이 프로타고라스에게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들을 통하여 필자는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에 대한 플라톤의 해석과 비판을 고찰함과 함께, 역사적 프로타고라스가 인식론에서 플라톤의 해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다루었으며, 그 기반은 프로타고라스의 신들에 대한 언급을 직접적이며 원형 그대로를 전승해주는 섉스투스 엠포리쿠스와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우스의 전승인 ‘신들에 대하여’에 대한 해석을 통하고 있다는 점을 보였다. 그들의 전승에 따르면, 프로타고라스의 ‘신들에 대하여’는 프로타고라스가 제시하고 있는 인식 판단의 한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주며, 동시에 인식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못하게 될 경우 제시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다는 것 역시 제공해 주고 있다. 이를 토대로 단편이 제공하는 인식 판단의 내용과 인식 발생 및 발생 불가능에 대한 조건들, 즉 인식 대상의 불명료성과 인식 대상을 파악하기에 요구되는 시간의 길이에 관한 해석의 작업을 통해, 필자는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을 시간적 연장선 위에서 인식 주체가 각각 다양한 대상들과 동일한 대상들에 대해 여러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쪽으로 귀결되었다. 즉 ‘인생이 짧다’는 것을 통해 프로타고라스가 헤라클레이토스의 극단적인 만물유전설로부터 벗어나, 시간적으로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동일성을 가지는 인식 주체를 상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앞서 그 연관성을 언급했듯이, 인식의 대상이 매 순간마다 있거나 혹은 있지 않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해 알거나 말할 수 없다는 것은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이, 단순히 감각적인 내용만을 지각 대상으로부터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의 있음(to einai)까지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말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인식 주체가, 비록 영속적이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연장성과 지속성을 가지는 시간 위에서, 자신의 동일성을 가진다는 것은, 곧 각기 다른 시간에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각각 다른 판단을 가질 수 있되, 그 판단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반드시 인식 주체자의 시간

적 연장선 위의 자기 동일성에 위배된다는 것을 함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인식 주체는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자신의 시간적으로 앞선(t1) 판단 A와 시간적으로 뒤선(t2) 판단 B로부터 일종의 종합적인 결론을 유추하여(t3) 새로운 판단 C를 세울 수 있다. 게다가 이 판단 C는 단순히 판단 A와 판단 B의 절충적 종합인 것이 아니라, 각각 앞서서 발생했던 동일한 사태가 또 다른 시간에서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할 경우, 이 동일한 사태에 대해 더욱 나은 혹은 유용한 (행위를 유도할 수 있는) 판단으로 성립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타고라스가 의미하는 현자(sophos), 즉 비록 외부 대상에 대한 판단의 입장에서 더욱 혹은 전적으로 참되거나 거짓된다는 입장을 고수하지는 않더라도, 더욱 좋다거나 나쁘다는 것을 판단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준다는 것도 유도할 수 있다.<sup>16)</sup> 게다가 이러한 경우는 반드시 하나의 인식 주체에게만 적용될 필요가 없이, 둘 이상의 인식 주체 상호간에도 서로 적용될 수가 있는 것이기에, 이처럼 인식 상호 주관성이 적용되는 인식론을 프로타고라스가 주장하였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욱 합당하다.

이와 더불어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이 그 대상으로 ‘있음’을 포괄한다는 점을 통해, 인식 대상의 존재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

16) 플라톤은 프로타고라스가 더 참되지는 않지만 더 좋은 것에 의거하여 ‘현자’를 의미한다고 설명한다(『테아이테토스』 166d-168c). 즉 프로타고라스의 현자란 사람들을 ‘더 좋은 것으로 이끌어가는 이’인 것이다. 그러나 더 좋은 것에 대한 플라톤의 설명은 대화편에서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다음 논의로 넘어간다. 더 좋은 것이란 더 참된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기준을 요구한다. 즉 무엇이 어떤 것보다 더 좋다고 할 경우는 특정한 기준에 입각하여 더 좋다고 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더 좋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더 좋다’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대상의 성질로부터 판단되는 것 역시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이 『테아이테토스』편에서 해석되는 바대로 따를 경우 더 좋은 것을 향할 수도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 하지만 ‘신에 대하여’를 통하여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에 다가갈 경우, 귀납 추론을 통하여 더 좋은 것을 향한다는 것이 가능하게 확보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점은 플라톤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던 미래에 대한 판단을(『테아이테토스』 172b) 프로타고라스로 하여금 가능하게 해준다는 이점이 있다.

진다고 지적하고 비판했던 점을 극복할 수 있으며, 또한 지각을 단순히 감각으로 치환해 버리는 플라톤의 작업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게다가 관계 개념에 대한 판단 성립의 가능성은 유사성과 비유사성에 대한 인식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해준다. 이와 같은 해석들을 바탕을 정리하여 종합해보면,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은 순간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과 인생의 짧음을 통해 확보된 지각자의 시간적 연장선 위에 있는 자기동일성과 종합 판단의 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단순히 오직 감각적 경험을 통한 정보획득만을 통로로 가지며 지극히 사적인 극단적 상대주의 형태의 인식론이 아닌, 일종의 종합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귀납 추론 형태의 인식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귀납 추론 형태의 인식론을 바탕으로 하여 프로타고라스는 인식 주체 간의 서로 상호적이고 등가적인 판단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합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sup>17)</sup> 게다가 이 점을 통하여 필자는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에 대해 플라톤이 궁극적으로 제기했던 비판인 의미의 공유 불가능과 상호간의 의사소통의 불가능성 역시 극복이 될 것이라 본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은 플라톤의 의도와는 달리 외부 대상에 대한 정합적 판단뿐만이 아니라, 인식 주체 서로간의 상호주관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상대주의로 이해될 것이다.

---

17) 기종석(1988), p.97.

## 참고문헌

### 1. 그리스어 원전

- Diogenes Laertius, *“Lives of Eminent Philosophers” Vol. 2, translated by Hicks, R. D.*, Loeb Classical Library: Harvard University Press.
- Diels & Kranz, 1974, *Die Fragmente der Vorsokratiker*, Vol. 2, Weidmann.
- Lamb, W. R. M., ed, 1937, *Plato “Laches”, “Protagoras”, “Meno”, “Euthydemus”*, Loeb Classical Library: Harvard University Press.
- Lewis Campbell, M. A., 1973, *The Theaetetus of Plato with a revised text and English note by Lewis Campbell, M. A.*, New York: Arno Press.
- Fowler, H. N., ed, 1942, *Plato “Theaetetus”, “Sophist”*, Loeb Classical Library: Harvard University Press.
- Sextus Empiricus, 1971, *“Against the Physicists and Ethicists” Vol. 3, translated by Bury, R. G.*, Loeb Classical Library: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1948, *“Oeuvres choisies de sextus Empiricus”, traduites par Jean Grenier et Genevieve Goron*, Paris: Aubier.
- Sprague, R. K., 1990, *The Older Sophists*, 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 2. 번역 및 주석

- Burnyeat, M., 1990, *The Theaetetus of Plato, with a Translation of Plato’s Theaetetus by Levett, M. J. and revised by Burnyeat, M.*, Indianapolis, Cambridge: Hackett.
- Cornford, F. M., 1935, *Plato’s theory of knowledge: The*

*Theaetetus and the Sophist of Plato Translated with a Running Commentar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Cooper, John M., ed., 1997, *Plato Complete Works*, Indianapolis: Hackett.

McDowell, J., 1973, *Plato: Theaetetus*, Oxford: Clarendon Press.

Bostock, D., 1988, *Plato's Theaetetus*, Oxford: Clarendon Press.

### 3. 논문, 참고서적

기종석, 1987, '플라톤의 『테아이테토스』편에 나타난 「앎」의 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_\_\_\_\_, 1988, '프로타고라스의 지식론', 『서양고전학연구』 제2집.

김귀룡, 2000, '프로타고라스의 인본주의적 회의주의', 『충북대학교 인문학지』 제20집.

이태수, 1995, '플라톤 철학에 있어서 지각의 문제', 『철학연구』 제36집.

정준영, 1998, '『테아이테토스』편에서 논의된 인식의 문제: 지각·판단·로고스', 성균관대학교.

Guthrie, W. K. C., 1978, *A history of Greek philosophy Vol. 5: The Later Plato and the Acade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_\_\_\_\_, 1979, *The Sophis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Kahn, C. H., 1966, The Greek verb 'To Be' and the Concept of Being, *Foundations of Language*, Supplementary Series, Vol. 9, Dordrecht: Reidel.

\_\_\_\_\_, 1973, The verb 'be' in ancient greek, The Verb 'be' and Its Synonyms, Philosophical and Grammatical Studies Part 6, *Foundations of Language*, Supplementary Series, Vol. 16, Dordrecht: Reidel.

Kerferd, G. B., 1981, *The Sophistic Move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chiappa, E., 1991, *Protagoras and Logos*, South Carolin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Untersteiner, M., 1954, *The Sophists, translated by Kathleen Freeman*, Oxford: Basil Blackwell.

Versenyi, L., 1962, Protagoras' Man-measure Fragment, *The American journal of philology* 83.